



남도 명소 10곳 '한국관광의 ★' 후보 올랐다

■ 2014 '한국관광의 별' 광주, 전남·북 후보지

| 부문 | 관광지 |
|-------------|---|
| 생태관광 | 여수 비령길 고창 갯벌 |
| 문화관광자원 | 광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담양 청령 슬로시티 군산 시간여행(근대 문화유산) |
| 장애물 없는 관광자원 | 영광 백수 해안도로 순창 강천산 곤립공원 |
| 청조관광 | 광주 대인 예술시장 곡성 기차마을 |
| 체험형 숙박 | 여수 오동재 군산 고우당 |
| 쇼핑 | 장흥 토요일시장 |
| 체험형 음식 | 광주 남도 전통음식 체험 담양한과 명진식품 |

광주 대인예술시장·여수 비령길·고창 갯벌 등 온라인투표·전문가 심사 후 결정... 5월9일 시상

“내 가슴에 품은 남도명소 클리하면 ‘한국관광의 ★’이 됩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한국관광의 별’ 선정 이벤트에서 광주, 전남·북 14개소가 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경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한국관광의 별’은 ▲관광매력물 ▲관광정보 ▲관광환대 부문 ▲특별부문 등 4개 분야로 나뉘며, 11개 부문(생태관광자원·문화관광자원·체험형 숙박·쇼

공간여행(근대 문화유산), 군산 고우당, 순창 강천산 등 4개소가 후보에 뽑혔다. ‘한국관광의 별’ 후보는 전국 시도에서 추천했다. <표 참조>

해안절경이 빼어나 트레킹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여수 비령길’은 생태관광자원 부문에, 한옥호텔 ‘오동재’는 체험형 숙박 부문 후보에 선정됐다. 영광 백수해안도로는 ‘장애물 없는 관광자원’ 부문에서 후보로 올라 전국 6곳과 경합중이다.

또 1981년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순창 강천산도 ‘장애물 없는 관광자원’ 후보지 중 한 곳으로 후보에 올랐다.

이번 ‘한국관광의 별’ 온라인 투표는 4월 3일까지 인터넷(award.

visitkorea.or.kr)과 모바일을 통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후보군중 가장 좋았던 3개의 관광지 이내에서 투표할 수 있다.

수상자는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결과(30%)와 전문가 현장 심사(70%)를 반영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시상식은 5월 9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다.

한편 문화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우수한 국내 관광자원을 알리고, 우리나라 관광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관광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3년간 제외하고, 매년 ‘한국관광의 별’을 선정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사립탐정 등 新직업 44개 육성

정부 추진, 매매주택연출가·노년플래너도

사립탐정, 평판관리업체, 매매주택연출가, 노년플래너 등 영화나 소설에서나 등장했던 이색 직업을 국내에서도 가질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18일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발굴한 44개 신직업을 육성, 지원하기로 하고 인프라 구축방안,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00여개의 신직업 육성을 발표했지만, 문신 기술자 등 일부 직업과 다름이 있을 수 있는 직업과 ‘이혼플래너’ 등 명칭에 문제가 있는 직업이 논란이 되자 44개를 다시 선정했다.

이번 신직업 선정에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환경부, 경찰청 등 13개 부처와 산하기관이 참여했다.

민간조사원(사립탐정), 전직지원 전문가 등은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한 직업이고, 연구기획 평가사, 연구실 안전전문가, 온실가스관리 컨설턴트 등은 기존 직업을 세분화한 직업이다.

인공지능전문가·도시재생전문가는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도입하고, 임신출산육아 전문가, 과학커뮤니케

이터 등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직업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주택을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돕는 매매주택연출가, 이혼 절차와 고려 사항 등을 상담하는 이혼상담사, 온라인상의 개인·기업 평판을 관리하는 사이버평판관리사 등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직업으로 선정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동물간호사, 분쟁조정사, 디지털장사사 등이 도입을 추진하는 직업이다.

정부는 신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을 공모해 비용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창업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등으로 논란이 된 사립탐정 등 과거에 도입을 추진하다 백지화한 직업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정신대화사 등 성격이 모호한 직업도 포함돼 있어 실제 도입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연남뉴스

양림역사문화마을 2층 철골주차장 지하 1층~지상층 친환경으로 전환

광주시가 근대 문화유산 집결지인 ‘양림역사문화마을’ 입구에 경관 훼손 우려가 있는 2층짜리 철골 주차장을 조성하려한다는 지적(광주일보 12일자 2면)과 관련, 지하 1층~지상 주차장으로 전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광주시는 18일 “주민의견을 수렴해 양림역사문화마을의 철골 지상 2층 주차장 계획을 백지화하고, 지하 1층~지상층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하 74대, 지상 50대 등 124면짜리 주차장을 건립하는 한편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친환경 컨셉의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다만 해당 주차장 부지 지하

에서 암석이 발견됨에 따라 공사시 인근 노후주택에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는 건설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애초 양림동 파출소 뒤 편 주택가에 80억원(공사비 46억원, 보상금 34억원)을 들여 144면짜리 지상 2층 철골 구조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런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은 “양림마을의 개발 원칙은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조그마한 개발 계획이라도 주민들과 협의의 과정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2 주요도시와 문화콘텐츠 창작

취안저우·요코하마 등... 亞문화전당에 문화도시 교류 기구 설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가 ‘동아시아문화도시 2014’ 행사를 계기로 중국·일본 주요 도시와 문화콘텐츠 창작, 판매 등 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광주 시, 취안저우, 요코하마 등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참여하는 ‘문화도시 공동협의체’ 사무국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고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8일 오후 개막한 ‘동아시아문화도시 2014’ 행사에 앞서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중국과 일본에서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취안저우, 요코하마시와 문화콘텐츠 제작, 판매,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도시 개막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 리젠웨이 중국 푸젠(福建)성 취안저우시 부시장, 스미카와 기이치 일본 동아시아문화도시 실행위원장은 이날 광주시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협력 방안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강시장은 이와 관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CGI센터, CT연구원 등 광주의 문화콘텐츠 기반을 활용해 애니메이션, 디자인, 첨단영상 부문에 앞서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국 공동제작·판매·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또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취안저우와 요코하마 문화행정을 벤치마킹 하기로 했다. 취안저우시

의 고성복원, 요코하마시의 창조문화도시 재생사업을 광주의 문화유산 복원과 도심재생 사업에 응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아시아권 국가와 도시간 협력이 절실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정동태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장은 “세 도시의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에 사무국을 두고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취안저우와 요코하마에 이같은 방안을 제안한 뒤 5월 이후 실무단을 꾸려 협의체(문화도시 공동협의체) 상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영산강 고대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

영산강 일대 고대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나주시는 19일 시청 이화실에서 나주국립박물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국립목포대학교박물관 등과 함께 ‘영산강 고대유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산강 유역권에는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묘로 평가받는 대형 전용옹관고분인 반남 고분군(사진)과 복암리 고분군, 고대 성곽인 자미산성과 회진성, 복암리 고분군 주변에서 출토된 고대의 기록물인 백제 목간(木簡) 등 고대문화유산이 분포돼 있다.

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지속적인 학술대회와 전문가들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기초작업을 추진해 왔다.

/나주=송영철기자 ycon@



또 그동안 전문가들의 워크숍과 유적 정비로 영산강 고대문화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졌다.

나주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영산강 유적의 고분군을 국내외에 알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만들겠다”며 “대형 옹관고분군과 성곽 등은 나주지역에 광명소로 가치를 높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증-52297호

老安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밝은광주안과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폼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점: 361-3515 양동지점: 362-6164
전화 각화지점: 268-6163 풍암금호지점: 651-6167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46번길 3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탁이 바뀝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탁

공동본점 | 227-4474
금호지점 | 383-4474
풍암지점 | 653-4474